

피사체와 사진 이미지의 경합

: 《Reality X Reality》

(고은사진미술관·BMW Photo Space, 2016년 8월 16일-10월 1일)

문혜진(미술비평)

고은사진미술관·BMW Photo Space의 2016년 세 번째 靑사진 프로젝트로 전시중인 양호상의 《Reality X Reality》는 구작인 <Stereogram>(2012-14)과 신작 <Diffused Scene>(2011-)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작업은 양호상 작업 일반의 특징을 대변할 뿐 아니라 작업의 이행과 변천 과정을 담고 있기도 하다.

<Stereogram>은 작가로서 양호상을 알린 계기가 된 작업이다. 주변인들이 간직하고 있던 옛날 기성복들을 수천 벌 수집해 의복이 산업화되고 패션이 사회적 정체성의 일환이 되는 과정을 아카이빙한 이 작업은 피사체라는 표상체계와 이를 이미지화하는 사진이라는 표상체계의 충돌을 선명히 드러낸다. 우선 피사체인 의복은 집단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작용을 수행한다. 주로 주변의 일상에서 작업의 모티프를 얻는 작가는 학창시절 비슷한 스타일의 옷으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던 일화에서 개성이 억제되고 전체성이 강조되는 현대성의 한 특징을 감지했다. 획일화된 개성에 대한 생각은 집단 유행의 출발로서 초기 기성복에 주목하게 했고, 이에 따라 그는 기성복이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1950년대에서 유행이 제작에 반영되기 시작한 1970년대 사이의 옷들을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후 작가는 수집된 옛날 옷들의 패턴을 촬영 후 복제 및 조합해 오브제의 배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에 원출처인 기성복을 없으면 패턴 속에 오브제가 스며들어 감춰지는 특유의 위장(camouflage) 이미지가 형성된다.

배경과 형상의 구분이 흐려진 이미지는 집단 속에 녹아들어 상실된 개인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이나,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착시 이미지의 효과는 의외의 경합을 발생시킨다. 피사체인 기성복은 실제 인물들이 입고 간직했던 것으로, 실물이 은유하는 진품성과 개인의 역사를 표상한다. 실존 인물이 몸이 지니던 것으로서의 옷은 실제의 흔적이자 진정성의 상징으로 미학적 오브제 이전에 사회적 자료(document)기도 하다. 하지만 텍스트의 도움 없이 이미지를 조우하는 관객에게 일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진 이미지 자체의 시각적 매혹이다. 관객은 옵아트(op art)에 가까운 형상(figure)과 배경(ground)의 돌고 도는 게임에 매료된다. 옷의 패턴이 크고 색깔이 화려할수록 오브제와 배경을 구분하기는 힘들어진다. 형태를 분별해내는 눈의 인지 작용을 시험하는 이 같은 게임은 이미지를 구현하는 시각적 전략들로 더욱 정교해진다. 형상과 배경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에는 사진 매체의 특수성이 작용한다. 3차원 사물을 납작하게 변환시키는 사진의 평면성은 합성된 이미지인 배경과 실제 촬영 이미지인 형상 사이의 구분을 무화시킨다. 필름이 아닌 디지털 촬영 또한 이미지를 평평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디지털 사진의 평면성에 옷과 배경의 패턴을 맞춰 배치하는 방식이 더해지면서 은폐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형식적 층위에서 강조된 디지털 허상과 표면성은 실제와 진정성을 표상하는 내용적 층위의 의미와 부딪치게 되는데, 이 같은 충돌은 피사체와 사진 이미지라는 상이한 재현 체계의 경합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하여 작가는 내용과 형식의 간극을 좁히는 쪽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신작 <Diffused Scene>은 그 결과로, 여기서 언제나 '공사 중'인 한국의 혼한 도시 정경은 만들어진 합성 풍경으로 제시된다. 출발점이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상의 일부라는 점은 신작에서도 동일하다. 끝없이 짓고 부수어 온갖 양식과 장르가 공존하는 혼성 모방의 풍경은 맹목적 경제 발전의 기치 아래 모든 것이 희생된 한국 근대화의 민낯이다. 아파트 키드인 작가에게 고향의 기억은 단층 아파트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

트로 끊임없이 변화한 아파트 변천의 풍경이다. 작가는 전국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현실의 잡종 풍경들을 채집했고, 이를 합성하고 변형시켜 시공간이 뒤섞인 '확산된 풍경'을 만들었다.

여기서 디지털 합성이라는 형식은 탈시간적인 한국의 현실 풍경이라는 내용에 꼭 들어맞는다. 연작 중 가장 대작인 삼면화(triptych) 작업은 작가의 집에서 바라본 잠실 인근의 풍경을 조합한 것이다. 얼핏 보면 흔한 동네 풍경처럼 보이는 이 사진은 실상 수십 겹의 시공간이 중첩된 콜라주로 만들어진 가짜 현실이다. 우선 고가도로 위의 풍경은 작가의 방에서 바라본 장면이고, 고가도로 밑의 모습은 베란다에서 쳐다본 풍경이다. 공간적 시점이 같은 풍경이라도 시간적 측면에서는 이중적인데, 원경에 보이는 아파트 숲과 중경의 빌라촌 및 상가는 2011년, 2013년, 2016년에 촬영한 이미지들의 조합이다. 한때 존재했으나 이미 사라진 풍경들은 현재의 풍경과 공존하며 기묘한 유사현실을 형성한다.

재미난 점은 이 이미지들이 합성사진임을 스스로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찰력이 좋은 이라면 고가도로 위와 아래의 풍경이 어딘가 절단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원근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다수의 사진에서 발견된다. 외견상 정돈된 형식주의 사진처럼 보이는 건물 파사드 사진들이 좋은 예로, 본래 한 층만 존재하는 가림막을 끌어올려 건물 전면을 덮거나 왼쪽 건물을 데칼코마니처럼 복제해 거울대칭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작인 <Stereogram>에 나타난 패턴의 반복이나 화면의 평면성이 <Diffused Scene>에 와서 한층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점은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연작의 공통점이다. 건물과 바닥면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이은 듯한 어색함과 평면성은 거의 모든 사진에서 관찰된다. 아코디언처럼 주름잡힌 청색 가림막은 건물 3동을 이어 붙여 만든 것이고, 아파트 전면의 숲은 6-7개 이상의 각기 다른 수풀을 조합해 만들어낸 것이다. 가짜 사진들의 향연은 진짜 사진마저 합성으로 여기게 만든다.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하늘색 주공아파트는 조작하지 않은 실사지만 조작된 이미지에 익숙해진 눈은 실제와 허구를 제대로 구분하기 힘들다. 합성 이미지와 스트레이트 사진이 다를 바 없음은 끊임없는 재개발로 시차를 지닌 건물들이 공존하는 한국의 현실풍경과 조작된 이미지의 유사성을 상기시킨다. 더욱이 그 뒤섞인 풍경들이 스치고 지나가 또 한 번의 편집과 굴절을 거친 기억은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 확산된 현실에서 기억은 실재와 중첩되고, 경합하던 내용과 형식이 하나의 풍경 속에서 조우한다.